

을, 1474년(성종 5)에 명륜당을 건립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으나 임란으로 인해 소실되었다.

선조 18년(1585) 대성전을 중수하고 1686년(숙종 12)에 제기고를 건립하였다. 1732년(영조 8)에 대성전과 명륜당이 중수되고 1742년(영조 18)에 비로소 동·서무가 건립되었다. 그 후 1869년(고종 6) 동·서무와 태화루가 중수되고 1886년(고종 23) 대성전과 명륜당이 중수되었으며 1977년 태화루가 도괴되어 재축하였다. 현재 제기고는 2006년에 신축되었고 태화루 우측에 남향으로 관리사가 있다.



<그림 104> 평해향교 대성전(문화재자료 제160호)

전학후묘의 방법에 따르고 있으며, 명륜당 전면에 동·서재 대신 태화루가 자리하여 대성전과 동일축 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출입은 누 하부를 통하지 않고 우측계단을 이용하여 당에 오르게 하였으며, 전으로는 내삼문과 우측협문을 이용토록 하였다.

대성전은 정면 5칸에 측면 3칸의 전퇴가 없는 다소 큰 규모이다. 정면 어칸문은 쌍여닫이 궁널띠살문을 달고 양협칸은 격자광창을 두었으며 양퇴칸은 외여닫이 궁널띠살문을 내축기둥에 기대어 달았다. 그리고 전면 벽체는 판벽에 가로·세로 띠장을 댄 벽을 세우고 측면과 배면벽은 심벽으로, 하벽은 부측벽으로 처리하였다. 2고주 5량구조이며 포대공으로 중도리와 뜬창방을 받도록 하고 제형판대공에 공아를 넣어 중도리를 지지케 하였다.

주심포계열로 전면은 외1출목 2익공양식이며 배면은 출목없이 2익공으로 처리하였다. 살미형상은 길고 날카로우며 첨차는 단부가 사절되고 하부는 쌍S자형으로 초각되었다. 처마는 정면은 겹처마이며 배면은 홑처마로 처리하여 맞배지붕을 올렸다. 전체적으로 정면이 매우 강조된 느낌을 주는 건물이며 조선 중기, 즉 임란이후의 건축양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제3절 비지정문화재

1. 동산문화재

1) 경덕전등록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77호로 지정된 목판본으로 크기는 27.6cm×20.2cm로 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2) 고봉화상선요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95호로 지정된 송정 8년인 1635년의 작품이며 목판본으로 된 크기 24.5cm×17.7cm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3) 관음보살 후불탱화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64호로 지정된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비단으로 된 크기는 190cm×146cm이다.

4) 금강반야경소론찬요간정기회편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82호로 지정된 조선 현종 때의 작품이고 목판본으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29.2cm×20cm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5) 금강반야바라밀경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81호로 지정된 강희 4년인 1665년의 작품으로 목판본으로 된 크기 35.8cm×25cm로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6) 금강역사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72호로 지정된 조선조의 석조물로 불영사 명부전에 소장되어 있으며 크기는 126cm×63cm이다.

7) 금구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59호로 지정된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가죽으로 된 크기는 10.5cm×66.5cm이다.

8) 나배

1979년 1월 30일 동산문화재 제5088호로 지정되어 약 500전 소라껍질을 잘라서 만든 술잔으로 장백손이 강계 도호부사로 있을 때 지역주민이 선사한 것이라고 하며 소라 껍질에 매화를 새긴 걸작품으로 장백손의 17대 후손인 북면 주인리 장현철이 소유하고 있다. 크기는 직경 17cm, 두께 40cm이다.

9) 대방광단각수다라료의경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79호 및 제3580호로 지정된 성화 원년인 1470년과 만력 39년인 1611년의 작품 2종으로 목판본으로 된 크기 36.1cm×25cm, 31.2cm×21.1cm로 불

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10) 대방광불화엄경소연의초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73호로 지정된 조선조 때의 작품으로 목판본으로 된 책 8권이며 크기는 30.3cm×20.4cm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11) 대방광불화엄경현행원품소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75호로 지정된 조선조 때의 목판본으로 크기는 30.7cm×19.9cm이며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12) 대웅보전 현판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62호로 지정된 조선조 때의 작품으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나무로서 크기는 120cm×150cm이다.

13) 독성 탕화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52호로 지정된 탕화로서 1880년의 작품으로 불영사 산신각에 소장되어 있고 비단으로 된 크기는 213cm×22.5cm이다.

14) 만고화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65호로 지정된 목판으로 기성면 사동리에서 태어난 김주서가 4살 때 쓴 것이며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고 크기는 107cm×44cm이다.

15) 묘법연화경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76호로 조선조 때의 목판본으로 크기는 13.8cm×21cm이며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16) 법고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57호로 지정된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가죽으로 된 크기는 104cm×17cm이다.

17) 불련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61호로 지정된 부처님의 위패를 실은 가마로서, 조선 영조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고 나무로 된 크기는 129cm×317cm이다.

18) 불설대보부모사중경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97호로 지정된 만력 2년인 1575년의 작품이며 목판본으로 된 크기 28.2cm×19.5cm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19) 불설무량수경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98호로 지정된 함풍 11년인 1861년의 작품이며 목판본으로 된 크기 30.2cm×20.7cm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20) 불설천지पाल양신주경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99호로 지정된 목판본으로 크기는 29.3cm×19.5cm이며 도광 13년인 1833년의 작품으로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21) 불영사 가직인 및 가직장

1978년 2월 28일 동산문화재 제3569호로 지정된 조선조 때의 인장으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크기는 6cm×4.4cm, 4.8cm×2.8cm이다.

22) 불영사 시창기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86호로 지정된 불영사 시창기로서 불영사 창건 당시의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370년 한림학사 유백유가 쓴 것으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으로 크기는 37.2cm×26.5cm이다.

23) 불영사 유제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67호로 지정된 조선 후기의 나무로 된 현판으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크기는 89cm×37cm이다.

24) 불영사 적묵당 창설 선원기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66호로 지정된 현판으로 불기 295년의 작품으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나무로 된 크기는 189cm×41cm이다.

25) 불영사 불량답소전책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58호로 지정된 광무 6년인 1902년의 작품이며 필사본으로 된 크기 39.7cm×28.8cm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26) 사분계본여석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85호로 지정된 건륭 을축인 1745년의 작품이며 목판본으로 된 크기는 30cm×19.4cm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27) 산신 탕화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51호로 지정된 탕화로서 1880년의 작품이며 비단으로 된 크기는 100cm×87cm 이고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28) 삼장 탕화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54호로 지정된 탕화이다. 건륭 4년인 1739년의 작품으로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비단으로 된 크기 188cm×236cm이다.

29) 석가모니 문수 보현보살 좌상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47호로 지정된 조선시대의 작품으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나무로 된 크기 100cm×55cm, 93.5cm×43.5cm, 93.5cm×43.5cm이다.

30) 석가모니 후불탱화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48호로 지정된 옹정 11년인 1733년의 작품으로 불영사 대웅전 불상 뒤에 소장되어 있으며 비단을 된 크기 480cm×355cm이다.

31) 석가모니 후불탱화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50호로 지정된 광서 6년인 1880년의 작품으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32) 석가여래 탕화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56호로 지정된 1880년의 작품으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비단으로 된 크기는 130cm×133cm이다.

33) 선문찰요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78호로 지정된 융희 2년인 1908년의 작품으로 목판본으로 된 크기 27.7cm×19.2cm로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34) 설선당 준각기문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89호로 지정된 가경 11년인 1806년의 작품이며 필사본으로 된 크기 109cm×48.5cm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35) 순조대의 호적

1828년(순조 28) 남경순 호적에 부·조·증조·외조가 등재되었으며 처·처부·처조·처증조 및 처외조가 등재되었고 몇 자 낮추어 자·자부 및 몇 자 낮추어 노비가 부기되었으며 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노비는 성을 갖지 못하였던 것 같다.

36) 시왕 탕화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55호로 지정된 조선조 때의 작품으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비단으로 된 크기는 102cm×77cm이다.

37) 신중 탕화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53호로 지정된 함풍 10년인 1860년의 작품으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비단으로 된 크기는 213cm×225cm이다.

38) 아계 이산해 선생의 사동춘기

조선조 선조때 8대 문장가의 한 사람이며 영의정을 지낸 문충공 이산해 선생이 선조 21년에 기성면 황보리에 귀양 올 때 삼척인 진주로부터 울진을 거쳐 기성에 이르기까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관동팔경의 산세를 살펴보고 관동의 청숙한 기운이 다하여 지낼 수 없는 데에는 반드시 산세가 굴곡해 상서로운 기운이 하나로 뭉쳐 박혀진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사동이라 하였고 또한 재주가 뛰어난 선비가 그 마을에 태어난 사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때 한림원의 황학사·형조의 원외랑인 형조정랑 황여일 선생을 만나 보니 문사가 뛰어나고 풍부하며 문의가 뛰어나고 기량이 넓고 큰 것에 탄복한 연후에 그 상서로운 기운이 황원외에게 있음을 알았다고 하였으며 인재가 무상하게 배출되어 끊이지 않을 것을 점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평해 황씨 세보에 목판본으로 기록되어 있다.

39) 아계 이산해 선생의 정명춘기

문충공 아계 이산해 선생이 선조21년에 기성면 황보리에서 5년 동안 귀양살이를 할 때에 기성면 정명리의 대해 황응청 선생과 교우가 두터워 정명춘에 자주 들러 학문을 토론하였는데 대해선생과 문답한 말을 기록하여 정명춘기를 지었다. 원문이 목판본으로 평해 황씨 세보에 기록되어 있다.

40) 우암 송시열 선생의 영정

기성면 황보리 692번지 소재 1816년에 건립된 노동서원에 우암 송시열 선생을 봉안하였는데 1816년 전후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우암선생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이 영정은 마지에 그린 것으로 색채가 조금도 퇴색됨이 없이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다.

41) 위목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49호로 지정된 조선중기의 부처님 위패로서 금강송면 하원리 소재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고 나무로 된 크기 42cm×23cm이다.

42) 유마힐소설경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84호로 지정된 함풍 갑인인 1854년의 작품으로 크기는 29.8cm×19.5cm로 목판본이며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43) 인함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68호로 지정된 연대 미상의 인장 보관함으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나무로 된 크기는 10.5cm×14cm이다.

44) 조선의 호적

1414년(태종 15)에 시행한 호적이며 북면 주인리 장씨 종가에 소장되어 있다. 낭장이었던 장인숙의 추심호이다. 다른 대부분의 추심호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은 거의 모두 고려 후기의 것이며 생존된 것으로 기록된 몇 명의 인물조차도 모두 고려말에 활동하였던 사람들이다. 71년에 간행된 『울진군지』에 급제홍패와 함께 장양수의 세계가 포함된 조선초의 호구단자가 한글로 토를 달아 거의 전문이 실려 있다. 71년도 군지 간행과 거의 같은 시기에 장씨 종가의 잇다른 홍사와 후손들의 식견부족으로 인하여 군지에 실린 것을 마지막으로 장가의 휴지와 함께 불살라졌다. 이 자료가 현존하였다면 호구단자로는 가장 오래된 일차 자료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울진 장씨 족보와 군지 등을 토대로 하여 이를 분석한 연구성과가 나와 있어서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45) 지장보살 도명존자 무독귀왕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70호로 지정된 크기 139cm×76cm와 132cm×42cm 그리고 128cm×35cm의 3점이 돌로 되어 있고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46) 지장보살 후불탱화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71호로 지정된 1880년의 작품으로서 크기는 260cm×270cm이며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47) 지장보살본원경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96호로 지정된 가경 2년인 1797년의 작품으로 목판본으로 된 크기 27.8cm×19cm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48) 책판

남계명저 해운집판, 상현사 소재 남사고저 격암집판, 주신개저 이우당집판, 주필대저 한재집판, 전선저 만은집판, 구장사 소재 전구원저 우와집판, 윤시형저 우암집판, 윤사진저 정관치설판, 몽천서원 소재 윤사진저 황림집판, 황응청저 대해집판, 명계서원 소재 황여일저 해월집판, 명고서원 소재 황중윤저 동명집판, 김역저 탁계집판, 우암선생 송시열의 친필 등이 있다.

49) 천군기

항씨 종가의 유품으로 내려오는 삼황연의라는 책 속에 천군기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맨 앞장에는 ‘비술기종전미오 어차편우언운중차 승정계유중추’라는 글귀와 동명 황중윤 서로 표기되어 있다. 이 책의 기록 연대는 1633년(인조 11)이고 광해군 때 승지를 지낸 황중윤이 쓴 것이며 조맹부체로 가로 28cm 세로 24.5cm 크기의 한지에 각 장마다 16행 22자로 19장에 걸쳐 쓰여져 있다. 완벽하게 해월헌에 보관되어 있다.

50) 천축산 불영사기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87호로 지정된 가경 15년인 1809년의 작품이며 필사본으로 된 크기 45.2cm×31.5cm이며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51) 치문경훈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91호로 지정된 목판본으로 크기는 28.7cm×20.2cm로 강희 을해년 1695년의 작품이며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52) 칠구와불모소설준제시라니경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92호로 지정된 목판본으로 크기는 34.1cm×27.8cm로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53) 칠중 수계의례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90호로 지정된 광무 5년인 1901년의 작품이며 목판본이며 크기는 29.7cm×19cm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54) 해월 선생 부인 완산 이씨 필사유언

1651년(효종 2)과 1656년(효종 7)에 기록한 2통의 유언기록문으로 해월선생의 부인 완산 이씨가 쓴 것이며 내간체로 기록한 한글로 쓰여진 우리나라 최초의 유언문이다. 크기는 가로 52cm 세로 50cm와 가로 70cm 세로 50cm로 앞서의 것은 강원감사에게 보낸 것이고 나머지 1점은 후손에게 남긴 것이다. 해월헌에 소장되어 있다.

55) 해월 황여일 선생의 유품

① 만국공여지도

1598년 이항복·이정구선생과 함께 변무진주사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갔을 때 이태리의 지리학자 ‘마테오리치’의 감수를 받아 손수 제작한 세계지도로서 병풍식으로 되어 있으며 동양 유일품의 걸작으로 현재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② 갈근필병풍

1588년(선조 21)에 해월헌을 이룩한 후 석봉 한호가 해월헌에 들러 해월헌 뒷산의 칙뿌리를 캐어 입으로 씹어서 붓을 만들어 쓴 친필 병풍으로 해월헌에 소장되어 있다.

③ 마상휴대용 술통

조선 명종 때의 것으로 추정되는 술통으로 사동에서 서울로 왕래할 때 술이나 물을 넣어 마상에 싣고 다니는 것으로 안주합과 술잔·잔대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월헌에 소장되어 있다.

④ 각대

조선 선조때의 것이며 해월선생이 사용하던 각대로서 2점이 있다.

⑤ 화살

해월선생이 임진왜란 때 윤탁연 및 권율 장군의 종사관으로 있을 때 사용한 화살이다. 행주대첩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⑥ 휴대용 모필갑

해월 선생이 사용하던 휴대용 필통이다.

⑦ 수저

해월 선생이 사용하던 수저이다.

⑧ 교지

관직교지는 해월 선생의 것이 23매, 동명공 교지 5매가 보존되어 있다. 입궐교지는 해월

선생과 동명공의 입궐고지 5매, 정부인교지는 해월 황여일 선생의 부인에게 내린 교지이다.

⑨ 과거답안지

해월선생과 동명공의 과거 답안지 2매가 보존되어 있다.

⑩ 내사 대학언해

선조께서 해월선생에게 하사한 대학언해이다.

⑪ 청동등잔

조선조 중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등잔이다.

56) 현판 황화실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63호로 지정된 조선 중기의 작품으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나무로 된 크기 60cm×115cm이다.

57) 현행서방경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94호로 지정된 강희 49년인 1710년의 작품이며 목판본으로 된 크기 29.3cm×20cm로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다.

58) 화각 은장도

1979년 11월 30일 동산문화재 제5089호로 지정되어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칼집은 화각, 칼자루는 은으로 용각되어 있는 쇠뿔은장도로 1 울진읍 호월리 장보균이 소장하고 있으며 크기는 21cm이다.

2. 비석군과 비

1) 북면 비석군과 비

① 북면 부구리에 있으며 모두 7기로 육방관속들 선정을 기리는 뜻에 세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울진 봉평비 전시관으로 이전되었다.

② 관찰사이공보혁훈민도애비 : 북면 나곡리 고포동 소재

③ 옥계서원유허비 : 북면 고목리 기곡동 소재

④ 구장사유허비 : 북면 신화리 소재

⑤ 묵암전만은유허비 : 북면 신화리 소재

⑥ 찰방장천말유허비 : 북면 주인리 도동 소재

2) 불영사 사적비

금강송면 하원리 120번지에 있으며 비머리는 길이 46cm, 폭 75.5cm, 두께 59cm이고, 비신은 높이 155cm, 폭 51.1cm, 두께 23.8cm이며, 비좌의 높이 19cm, 폭 1.07cm, 길이 83cm이다. 이 비는 최근에 제작한 것이나 이수나 비좌는 예부터 있던 것에 비신을 다시 세운 것이며 불영사의 사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3) 울진의 비석군과 비

조선시대 군수·현령·관찰사 등 고을 백성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선정을 베풀었던 명관들의 선정비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향인 임경필이 1922년 9월 2일에 자비로 새마실 도로에 25좌를 정열하여 놓았다. 그 후 1981년 6월 1일에 울진군에서 월송대 입구에 이설하였고 이설하면서 5좌를 추가하여 모두 30좌며 29기이다. 이 중에는 철비 2기가 있다. 2020년 현재 대다수 비는 울진 봉평비 전시관에 이전되었다.

<표 60> 울진의 비석

비석명	비석명
① 도순찰사 신응조 청덕선정비	② 어사 오명준 승세불망비
③ 관찰사 김치용 선정영세불망비	④ 관찰사 민치서 영세불망비
⑤ 관찰사 민영위 영세불망비	⑥ 관찰사 임한수 청덕선정비
⑦ 관찰사 정원용 영세불망비	⑧ 관찰사 홍우순 청덕선정비
⑨ 관찰사 남정의 청덕선정비	⑩ 현령 김태희 영세불망비
⑪ 관찰사 김정근 청덕선정비	⑫ 현령 이상성 청덕선정비
⑬ 현령 김태희 청덕선정비	⑭ 현령 남정환 청덕선정비
⑮ 현령 왕근호 청덕선정비	⑯ 현령 김봉년 청덕선정비
⑰ 현령 심규택 애민선정비	⑱ 현령 심해유 청덕선정비
⑲ 현령 남예원 청덕선정비	⑳ 현령 김태희 애민선정비
㉑ 현령 홍은 영세불망비	㉒ 현령 이광전 청덕홀민비
㉓ 군수 이규목 거사비	㉔ 군수 윤우영 인명선정비
㉕ 평해군 겸임 장영환 선정비	㉖ 관찰사 김승집 청덕영세불망비
㉗ 관찰사 강상국 선임상국 순기 선정비	㉘ 현령 성영구 후세불망비
㉙ 현령 황익 청덕애민선정비	㉚ 백운주진수기념비 : 울진읍 읍내리 소재
㉛ 직장동정장인행제단비 : 울진읍 호월리 소재	㉜ 판서장양수제단비 : 죽변면 소재

4) 평해읍 비석군과 비

평해읍 평해향교 태화루 앞과 울진 봉평비 전시관 등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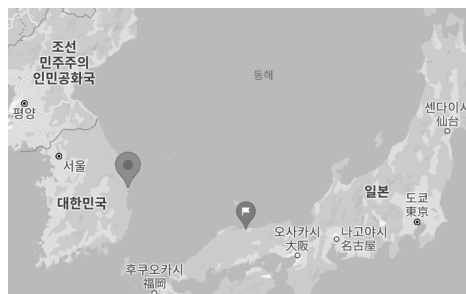
- ① 감사 안오상 신도비
- ② 군수 심공능무 불망비
- ③ 군수 이공승원 불망비
- ④ 군수 이공윤웅 불망비
- ⑤ 군수 신공치응 불망비

3. 기타⁵⁹¹

1) 「울진인표류도(蔚珍人漂流圖)」⁵⁹²

「울진인표류도」의 공식 명칭은 「표류조선인도(漂流朝鮮人圖)」이다. 「울진인표류도」는 현재 日本 돗토리현(鳥取縣) 소재 돗토리현립 도서관(鳥取縣立圖書館), 돗토리현립박물관(鳥取縣立博物館) 등이 소장하고 있다.

조선시대 조선인이 일본에 표착한 사건은 1,112건이다. 울진 지역의 경우에는 1695년(숙종 21)을 시작으로 해 1887년까지 약 32건[울진 10건, 평해 21건]이 발생했다. 당시 강원도에서는 울진 32건, 삼척 12건, 간성 7건, 고성 3건, 통천·울릉도 1건으로, 강원도지역에서 가장 많이 일본에 표착했다. 당시 평해 월송포가 해상 유통의 중심지이자, 한양과 지방을 연결하는 6대로 중 하나인 육로교통의 출발점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표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류 신분을 보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주로 어민과 상매였고, 18세기에는 어민과 상매, 19세기에는 상매가 주로 표류했다. 표류지역은 이즈모(石見)·치쿠젠(筑前)[현 후쿠오카(福岡)]·나가토(長門)·나가사키(長崎)·이와미(石見)·쓰시마(對馬) 등이었다. 그 가운데 대부분 일본 중서부지역에 있는 나가토(長門)에 표착했다.⁵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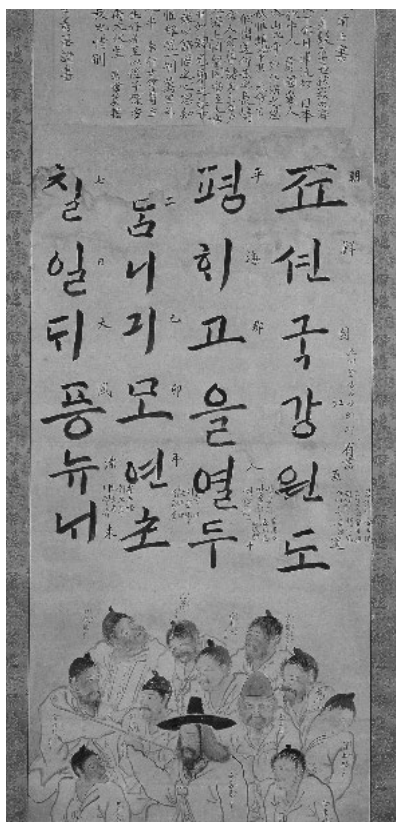
<그림 105> 안의기 일행이 출발한 울진(●)과 표착 지역인 돗토리현 아바세(●)

출처: 구글 어스

591. 제10장 문화재 조사 및 지정현황 가운데 「울진인표류도」만 임삼조가 작성.

592. 본 글에서는 「표류조선인도」가 아닌 ‘울진인’임을 강조해 「울진인표류도」라 지칭하겠다.

593. 손승철, 2015, 「조선 후기 강원도의 표류민 발생과 송환-1819년 안의기 일행 표류를 중심으로」『인문과학연구』4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
소의 <표 2> 강원도 표류민 일람에서 울진 지역 관련 내용을 분석해 작성하였다.



<그림 106> 「표류조선인(漂流朝鮮人)」
문정2년(文政二年)

소장: 돗토리현립도서관(鳥取縣立図書館)

돗토리현립도서관(鳥取縣立図書館), 돗토리현립 박물관(鳥取縣立博物館)에 소장한 「울진인표류도」에는 1819년 1월 7일 평해를 출항해 (음력) 1월 11일⁵⁹⁴ 호키(伯耆) 야바세포(八橋浦)[현 돗토리현 호키]에 표착한 안의기(安義基)를 비롯한 평해민 12명을 그렸다.

돗토리현립도서관(鳥取縣立図書館) 소장 「울진인표류도」(그림 106)[공식 명칭 「표류조선인(漂流朝鮮人)」 문정2년(文政二年)]은 화폭을 세단으로 나눠, 글과 그림을 그렸다. 상단에는 봉행사강씨전상서(奉行士岡氏前上書), 가운데 단에는 조선국 사람 안의기 유서(有書)가 글로 적혀 있고, 하단에는 안의기 일행의 그림이다. 첫 단의 봉행사강씨전상서는 안의기가 작성했다. 그는 표류 과정, 돗토리현에서 자신을 비롯해 12명 표류민을 보호해주고, 돗토리현에서 나가사키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 등을 적었다. 가운데 단도 역시 안의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해 작성했다. 내용은 “조선국 강원도 평해 고을 열두 사람이 기묘년 초 7일 대풍으로 표류해 오다.”이다. 또한, 같이 표류한 11명의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병기했다. 마지막 단에는 12명을 그리고 각 인물 옆에 이름[한자, 카타타식 일본어 표기]과 나이를 적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안의기(安義基) 53세, 권인택(權仁宅) 52세, 김삼이(金三伊) 60세,
안택이(安宅伊) 43세, 김정손(沈正孫) 40세, 이동백(李東白) 32세,
최오복(崔五福) 22세, 이덕수(李德守) 43세, 전성철(田成喆) 32세,
김일손(金日孫) 50세, 안용태(安用太) 39세, 안용택(安用宅) 38세

안의기를 중심에 두고 좌우에 각 5, 6명씩 배치하였다. 안의기는 다른 사람과 달리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긴 곱방대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다. 12명 가운데 5명은 호패를

594. 鳥取縣立図書館, 「漂流朝鮮人之圖」, <https://www.library.pref.tottori.jp>, 2021. 4. 27

지니고 있어 출신을 확인할 수 있다. 안의기·김일손·안용태·이동백은 평해 사람이고, 전성철은 울진 사람이다.⁵⁹⁵

도토리현립박물관(鳥取縣立博物館) 소장 「울진인표류도」(그림 107)[공식 명칭 「표류조선인(漂流朝鮮人)」]은 『인부역년대잡집(因府歷年大雜集)』에 실려 있다. 『인부역년대잡집』은 1632년[일본 寬永9]부터 1853년[일본 嘉永6]까지를 기록한 책으로, 『인부역년대잡집』 11에 「하쿠주 야바세포에 조선인이 표착한 건(伯州八橋浦へ朝鮮人漂着の事)」에 첨부되어 있다.⁵⁹⁶ 도토리현립도서관(鳥取縣立図書館) 소장 「울진인표류도」의 하단처럼 안의기 일행의 인물화가 그려져 있고, 안의기 일행이 야바세포에 도착하는 과정을 글로 적었다. 인물화에는 한자 인명, 나이가 적혀 있다.



<그림 107> 「표류조선인(漂流朝鮮人)」

출처: 『因府歷年大雜集』 도토리현립박물관(鳥取縣立博物館) 소장

박광열·임삼조

595. 손승철, 2015, 위 글, 13~14쪽

김일손, 안용태의 호패에는 묘산(峯山)[평해의 구산(邱山)]으로 추정, 전성철의 호패에는 오천(烏川)[울진군 오산(烏山)]의 옛날 지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596. 鳥取縣立図書館,「因府歴年大雑集」, <https://www.library.pref.tottori.jp>, 2021. 4. 27